

보물섬, 1931

엘피어스 하이어트 베릴

관타나모(Guantanamo)는 각양각색의 매력을 지닌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사람들의 뇌리에는 미해군기지로만 각인되어 있다. 스페인 탐험가들이 처음 관타나모를 발견한 것은 1511년의 일이다. 하지만 그들은 그곳으로부터 특별한 이익을 취하지 않았고, 관타나모 만(灣)을 버려둔 채 홀연히 떠났다. 그 후로 관타나모는 스페인과 서인도 제도를 오가는 갤리 선(15~17세기에 사용되던 스페인의 대형 범선)과 보물선을 표적으로 삼는 해적이 매복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장소를 제공하면서 악명 높은 해적 소굴로 변모했다.

당시의 스페인 사람들이 어떤 연유에서 세상에 둘도 없는 강적, 위험천만한 해적들을 자신들의 세력 범위 내에서 활개 치도록 내버려 두었는지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로 남아있다. 관타나모를 해적들의 기지로 삼게 둔 것도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약탈자들이 거두어들인 성공은 그들이 —마치 기생충처럼— 아무런 간섭 없이 바다에서 노략질 할 수 있었다는 뜻이며, 그들이 표적으로 삼았던 이들의 해상 지배권은 사실상 무의미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어느덧 약탈자의 시대는 막을 내리고, 그들의 뒤를 이어 베논(Vernon) 장군을 수장으로 한 영국이 관타나모에 해군기지를 세웠다. 이는 영국이 쿠바를 포위하고 있었던 1741년의 사건으로, 영국군이 관타나모 만을 선택했던 것은 산티아고에서 가까워 도시 침공을 위한 전술을 피하기에 적소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견고한 모로(Morro) 요새가 가로막



1633년에 지어진 모로(Morro) 요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고 있었기 때문에 바다로부터 산티아고에 입성하려는 영국군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고, 육로를 통한 기습 작전 역시 성공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였다.

당황한 영국군이 떠나간 뒤로 관타나모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진 채 외로이 남게 되었다. 그러던 중, 1898년의 어느 날, 육백 명 가까이 되는 미해병이 관타나모 항만의 하얀 모래사장에 발을 내디뎠다. 그들은 큰 힘을 들이지 않고 관타나모를 지키던 스페인 병사를 궤멸시켰다. 그리고 그 순간 이래로 관타나모는 미해군 기지가 되었다.

이 아름다운 항만으로부터 서쪽방향으로 거친 표면의 암석해안선이 펼쳐지기 시작한다. 산티아고를 지나 시에라 마에스트라(Sierra Maestra) 산맥에 이르면 깎아지른 듯한 절벽들이 절정을 이룬다. 시에라 마에스트라의 최고봉은 구름 덮인 투르키노(Turquino)로, 표고 8000피트에 달한다.

거센 파도가 부서지는 바로 이 험준한 암석해안에서 세르베라(Cervera) 제독 휘하의 스페인 함대가 미국 함대에게 무참히 격파 당했다. 미서전쟁으로부터 몇 년이 지난 후에도 산티아고에서 관타나모 방향으로



바야모(Bayamo) 시의 위치. 바다로 향해 돌출된 부분이 크루스 곶이다.

45마일 길이 해안선을 따라 폭격당한 선체의 파편들을 볼 수 있었다고 한다.

크루스 곶(Cabo Cruz)의 해안은 바다를 향해 눈에 띄게 돌출되어 있어 그 너머에 만사니요(Manzanillo)를 감추는 듯한 형세를 띤다. 만사니요는 날씨가 매우 덥고, 건강에 유익한 휴양지와는 거리가 멀지만, 거대규모의 비옥한 농촌 지역으로서의 중요

성이 부각되는 큰 항만도시다. 가장 중요한 마을로는 바야모(Bayamo)를 꼽을 수 있다. 바로 이곳에서 쿠바의 첫 대통령 토마스 에스트라다 팔마(Tomás Estrada Palma)가 태어났으며, 바야모에서 그리 멀지 않은 마을인 야라(Yara)와 바이레(Baire)에서는 1868년과 1895년에 일어난 두 차례의 독립전쟁 때에 그 어느 곳보다도 먼저 독립의 별이 그려진 쿠바 깃발이 바람에 나부꼈다. 1868년 1차 독립전쟁 시기에는 쿠바인들이 바야모를 쟁취하는 데에 성공했으나 그 다음 해에는 전세가 역전되어 스페인 군에게 항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바야모 주민들은 적군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삶의 터전을 불 태우는 쪽을 택했다. 쿠바를 독립으로 이끈 마지막 전쟁에서는 바야모 마을 전체가 치열한 전쟁터로 변했고, 이곳에서 스페인 장군 마르티네스 캄포스(Martínez Campos)는 안토니오 마세오(Antonio Maceo)에게 붙잡혀 포로 신세가 되는 것을 간발의 차로 면했다.

카우토(Cauto)강의 물줄기는 만사니요에서 북쪽으로 몇 마일 떨어져 있는 과카나이보(Guacanaybo)만으로 흘러든다. 쿠바에서 가장 길고 중요한 강인 카우토의 총길이는 무려 100마일이 넘으며 강 길이의 반 정도를



여왕의 정원(Las Jardines de la Reina)

배로 다닐 수 있다. 카우토 강은 아름다운 풍광으로도 유명하다. 강기슭을 따라 나무를 휘어감는 리아나(열대산 칙의 일종), 길게 늘어지는 공기 식물(에어플란트 또는 습생식물), 나뭇잎 사이에서 반짝이는 난초가 울창한 열대 숲 사이사이를 메우고, 사람이 다가설 때마다 물가에서 하늘로 날아오르는 왜가리, 따오기 그리고 장밋빛 저어새 무리를 볼 수 있다.

그리고 과카나이보만 너머, 강으로부터 흘러들어온 물이 채 섞이지 못한 지점의 터키석 색깔의 수면 위에 콜럼버스가 ‘여왕의 정원’이라¹⁾ 이름 붙인 여러 개의 작은 산호초 섬이 흩뿌려져 있다. 이곳에는 멋진 플라밍고 수천 마리가 서식하고 있어 카요(Cayo, 서인도 제도의 바다와 멕시코만의 작은 섬)의 갯벌이 온통 플라밍고의 각추형 등지들로 뒤덮여있다. 수많은 오리떼와 도요과 조류를 비롯해 다양한 야생 조류가 겨울을 나기 위해 이 정원으로 날아든다. 이곳의 바다는 화려한 색감과 기괴한 무늬를 지닌 열대어로 가득하고, 투명한 수면 아래로 비치는 해양 정원은 마치

1) 스페인어로는 하르디네스 데 라 레이나(Las Jardines de la Reina)—웁긴이.

미래파 예술가가 꾸는 꿈의 한 장면 같다.

여왕의 정원 서편에는 트리니다드(Trinidad)의 항구 카실다(Casilda)가 있다. 1513년에 세워진 카실다는 쿠바에서 가장 오래된 마을이기도 하다. 카실다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면 시엔푸에고스(Cienfuegos)에 이르고, 조금 더 들어가면 바타바노(Batabano) 항만에 도착한다. 바타바노 항만에서 여행자들은 ‘피노스 섬’으로²⁾ 데려다 줄 배편에 몸을 싣게 되고, 약 50마일 거리의 기분 좋은 항해 끝에 목적지에 도달한다.

이 섬은 콜럼버스에 의해 처음 발견되어 에반헬리스타(La Evangelista)라는 세례명을 받았지만 그 이름은 이제 고지도에서나 찾아볼 수 있다. 현재의 명칭인 피노스 섬은 섬의 상당 부분을 소나무 숲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일확천금을 꿈꾸던 스페인 사람들은 오로지 황금과 원주민 노동력을 확보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고, 따라서 이 조그만 섬을 쓸모없는 것으로 여겼다. 그들은 피노스 섬을 새와 악어, 그리고 몇 되지 않는 원주민과 함께 버려두고 떠났다. 반면에 해적들은 쿠바와 근거리에 있는 이 소나무 섬이 수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음을 간파하고 당장 자신들의 근거지로 삼았다. 약탈자들은 피노스 섬이라는 안전한 요새 뒤에 숨어 몇 세기동안이나 스페인 사람들을 괴롭혔다. 그로부터 세월이 흘러 피노스 섬은 밀수업자들의 아지트가 되었고 그후에는 스페인에 의해 죄수 유형지가 되어 쿠바의 악명 높은 범죄자들이 이 섬에 수감되었다. 하지만 종종 그러하듯, 한정된 자원만을 가지고 스스로 살아남아야 하는 상황을 맞닥뜨리면 악당들은 법을 준수하고 부지런하게 사는 방법을 터득하기 마련이다. 그리고 미서 전쟁의 끝자락 즈음에는 피노스 섬이 미국령이 될 운명을 타고났다고 믿는 듯한 미국인들에 의해 섬 영토의 대부분이 매입되었다. 미국인들에게 이 매입지가 썩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었지만, 피노스 섬은 계속해서 식민지배를 받았고 경작되었다.

2) 정식 명칭은 이슬라 데 피노스(Isla de Pinos). 이 글이 쓰인 당시에는 피노스 섬이었으나 1978년 이후에는 ‘젊음의 섬’이라는 뜻의 ‘후벤투드 섬’(Isla de Juventud)으로 바뀌었다—옮긴이.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흥미로운 사실은, 의심의 여지없이, 이 섬이 스티븐슨의 소설 『보물섬』의 실제 배경이라는 점일 것이다. 빌리 본즈와 롱 존 실버의 주 무대가 바로 피노스 섬이었다. 소설에 그려진 지도와 실제 피노스 섬의 지도를 대충 눈으로 훑어만 봐도 둘 사이의 놀라운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다. 더불어 피노스 섬을 방문하는 사람은 『보물섬』에 묘사된 여러 지형학적 특징들을 찾아내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아마도 스티븐슨은 피노스 섬을 방문해 이 장소가 실제 해적들의 아지트로 제격인 것을 보고 훗날 『보물섬』을 집필할 때 이를 활용했던 것 같다. 그리고 스티븐슨 역시 피노스 섬에 묻혀있다는 해적들의 보물과 관련된 수도 없이 많은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이야기들이 전혀 터무니없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피노스 섬은 약탈자와 해적의 근거지였고, 어쩌면 그들 중 일부는 훔친 보물을 섬 어딘가에 숨겨두었을 가능성이 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해적들의 보물 중 상당 부분이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은 채 숨겨져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어느 경우에라도, 만약 해적들이 훔친 보물을 비밀스러운 장소에 숨기고자 마음먹었다면 피노스 섬만큼 완벽한 장소를 찾지는 못했을 것이다.

피노스 섬의 대부분은 여전히 미개척지로 남아있으며 아주 적은 부분만이 벌목, 경작되어 있다. 섬 전체 면적인 50만 에이커의 사분의 일 이상의 면적은 도무지 헤치고 들어갈 수 없는 울창한 늪지대다. 이 늪지대는 수많은 야생조류와 악어, 바다소, 대게 등에게 보금자리를 제공한다. 늪지대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은 높은 산악 지대, 계곡, 평지로 나뉜다. 이 섬은 스포츠를 즐기는 이들에게 특히 더 매력적인 장소일 것이다. 해안과 하천에는 물고기가 넘치고, 숲과 늪지대에는 메추라기, 비둘기, 꿩, 닭, 들오리, 도요새, 물떼새를 비롯한 여러 수렵조가 있다. 게다가 섬의 명물인 거대 악어를 사냥할 기회도 많다. 옛날부터 이 섬에 서식하는 거대 악어들은 매우 악명이 높았는데, 해적이 활동하던 시절부터 악어떼의



피노스 섬. 소설 『보물섬』의 무대가 된 곳이며, 현 지명은 후벤투드 섬(Isla de Juventud)이다.

수와 그 흥포한 정도가 어마어마해서 그들의 일지에도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정도다. 어느 일지에는 보트가 전복되는 바람에 타고 있던 일행이 전부 악어떼에 잡아먹힌 사건이 기술되어 있고, 다른 기록에는 배 밖으로 떨어진 선원이 구명줄을 채 받기도 전에 악어에게 잡혀 먹은 일이 언급되어 있다.

농업 지역으로서의 중요성을 제외하더라도 피노스 섬에는 수많은 광천(鑛泉)이 있어 쿠바로의 생수 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흑연, 구리, 은, 망간 등의 광물이 묻혀있는 곳도 많으나 수익성 있는 개발이 가능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한편 언덕바지에는 진귀한 대리석이 나는 채석장들이 있고, 숲 속에는 마호가니, 향나무, 유창목과, 두말할 것 없이 소나무가 자라고 있어 풍부한 목재를 제공한다. 하지만 울창한 숲일수록 접근하기 어려운 산악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상업적으로 개발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노스 섬은 겨울나기와 요양을 목적으로 하는 휴양지로서는 손색이 없다. 날씨는 본토 쿠바보다도 훌륭한데다가 쿠바처럼 관광객이 붐비지도 않고 물가도 훨씬 저렴하다. 다양한 야외활동이 가능하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육천 명 가까이 되는 인구 중 반 이상이 미국인이라는 사실도 강조할 필요가 있겠다. 더불어 피노스 섬은 좋은 도로들과 많은 차량, 크고 훌륭한 호텔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가장 아름답고 건강에 유익한 열대 섬 중 하나라 단언할 수 있다.

[정지현 옮김]

앨피어스 하이아트 베릴(A. Hyatt Verrill, 1871~1954) - 미국의 동물학자, 탐험가, 작가. 서인도제도, 중남미에 관한 다수의 고고학적 탐사 기록을 남겼다.

정지현 - 서울대학교 서어서문학과 박사과정